

'아름다운 나의 신부' 김철규 PD "액션 위한 액션은 없다"

등록 2015.06.15 16:44:18 | 수정 2016.12.28 15:09:29



【서울=뉴스시스】신호령 기자 = "액션을 위한 액션만 하면 아무리 화려해도 공허한 액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드라마는 액션을 위한 액션은 없습니다."

김철규(사진) PD는 15일 서울 종로구 부암동 A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OCN 드라마 '아름다운 나의 신부'(극본 유성열·연출 김철규) 제작발표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배우 김무열(33), 이시영(33), 고성희(26), 류승수(43), 박해준(39) 등이 참석했다.

'아름다운 나의 신부'는 사라진 신부를 찾기 위한 한 남자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분노를 그린 감성액션 드라마다. OCN이 처음으로 선보이는 주말 라인업의 첫 미니시리즈다.

김 PD는 "감성액션은 우리 드라마를 표현하는 키워드"라며 "기존의 많은 드라마나 영화들이 인물 감정이나 이야기 흐름의 개연성이 빠진 채 액션을 위한 액션신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드라마에서는 액션이 필요할 때 인물의 감성이 녹아들고, 이야기 흐름상 필요하고 과장되지 않은 채로 등장한다. 이러한 점에서 감성액션이라는 용어를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며 "자연스럽고 절제된 영상과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많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김무열과 고성희의 캐스팅에 대해 '모험'이었다고 표현했다. 김 PD는 "이시영과 류승수, 박해준은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배우지만, 김무열과 고성희는 고심했던 인물"이라며 "두 사람이 아직 검증이 덜 됐고 경험이 부족하지만, 잠재적인 가능성을 보고 캐스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작진 입장에서는 다소 모험적인 캐스팅이었는데, 개인적으로 성공적인 캐스팅이라고 확신한다"며 "캐스팅이 성공적이었는지, 실패였는지는 시청자들이 판단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수사건전담반 TEN', '뱀파이어 검사', '실종느와르 M' 등 OCN을 대표하는 기존 장르물은 검사·형사 등이 주인공으로 등장해 사건을 해결해나갔다. 하지만 이번 드라마에서는 평범한 은행원인 주인공 김도형(김무열)이 사건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게 된다.

김무열은 극 중에서 비싼 두뇌와 뛰어난 운동신경을 겸비한 훈남, 제1금융 신국은행 기업금융부 과장 김도형 역을 맡았다. 하나뿐인 신부 윤주영(고성희)을 찾기 위해 어둠의 세력과 정면승부를 펼친다.

김무열은 "기존의 액션과 다르게 감성이 많이 포함됐다. 액션의 목적이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며 "얼마 전에 바닷가에서 신부를 되찾을 뻔하다가 놓치는 장면을 촬영한 뒤 바로 (신부를) 놓친 것에 대한 감성 장면을 찍었다. 이런 것들이 액션을 위한 액션이 아닌, 드라마에 녹아 있는 액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무열과 호흡을 맞추는 여배우는 이시영이다. 그는 내유외강의 열혈형사 차윤미로 분해 실종의 진실을 파헤친다.

이시영은 "형사물은 부담이 크고 어렵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려고 했는데, 김철규 감독 말처럼 감성적인 부분들이 아름답기도 하고 재미있었다"며 "어려운 역할이지만 출연 욕심을 냈다. 지금도 많이 어렵고 헤매고 있고, 작품 들어가기 전에 여러 작품들을 많이 참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갖고 다니는 녹음기가 있는데 계속 녹음하면서 들어보고, 발음에 많이 신경쓰고 있다"며 "다른 작품들보다 더 개인적으로 연습을 많이 했다. 기대 부탁드립니다"고 각오를 밝혔다.



고성희는 치명적인 매력을 지닌 김도형(김무열)의 약혼녀 윤주영으로 분한다. 그는 "'치명적'이라는 수식어는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다"며 "나라기보다 주영이 치명적인 여자다. 주영이 다양한 색깔을 갖고 있고 매력적이기 때문에 내가 잘 소화하면 잘 될 것 같다"고 캐릭터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반면 류승수는 악역의 고충을 털어냈다. 그는 극중 조직의 대부 자리를 노리는 냉철한 야심이 서진기 역을 맡았다.

류승수는 "원래 현장 분위기를 즐겁게 하는 편인데, 이번 작품에서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악역이라 현장에서도 내내 기분이 안 좋고, 화를 내야 한다"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16부작인 '아름다운 나의 신부'는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사랑하는 신부를 되찾기 위해 자신을 극한까지 몰아붙이는 한 남자의 처절한 순애보를 그린 이야기다. JTBC '무정도시'를 집필한 유성열 작가와 KBS 2TV '황진이', SBS '대물', 케이블채널 tvN '응급남녀' 등을 연출한 김철규 PD가 의기투합했다. 오는 20일 오후 11시 첫 방송.

snow@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